



류지혁

‘호랑이 군단’의 내야가 위기를 기회로 바꾼다.
KIA타이거즈는 올 시즌 탄탄한 선발진과 막강 필승조로 순위 싸움의 ‘다크호스’로 주목받고 있다. 높은 마운드를 자랑하지만 격차 큰 야수진은 KIA의 고민이었다. 특히 그동안 내야를 굳게 지켜 왔던 이범호에 이어 안치홍이 빠지면서 내야는 KIA의 가장 큰 약점으로 꼽혔다.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 지난 겨울 트레이드를 통해 장영석을 영입하고, ‘경쟁’으로 내야 체질 강화에 나섰다. 초반 결과는 좋지 못했다.
주전과 백업의 격차는 여전했고, 장영석이 공수에서 부진을 면치 못하면서 다시 2군으로 추락했다. 지난 시즌 ‘깜짝스타’가 됐던 박찬호도 극심한 부진에 빠지면서 고민은 깊어졌다. 설상가상 야수진에서 몇 안 되는 확실한 카드 김선빈까지 경기 도중 허벅지 부상을 당하면서 지난 10일 부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팀의 위기 상황이 찾아왔지만 누군가에게는 ‘기회’가 됐다.
트레이드를 통해 새 식구가 된 류지혁과 김선빈을 대신해 2루에 서고 있는 김규성이 기회를 시간을 보내고 있다.
사구에 종아리 통증이 있던 류지혁은 김선빈이 빠진 10일 엔트리에 등록돼 KIA 선수로 데뷔전을 치렀다. 우천 강우 콜드로 브룩스가 행운의 무사사구 완봉승을 올린 이날, 류지혁은 좋은 수비로 화려

苦盡機來

〈고진기래:고생 끝 기회 왔다〉

류지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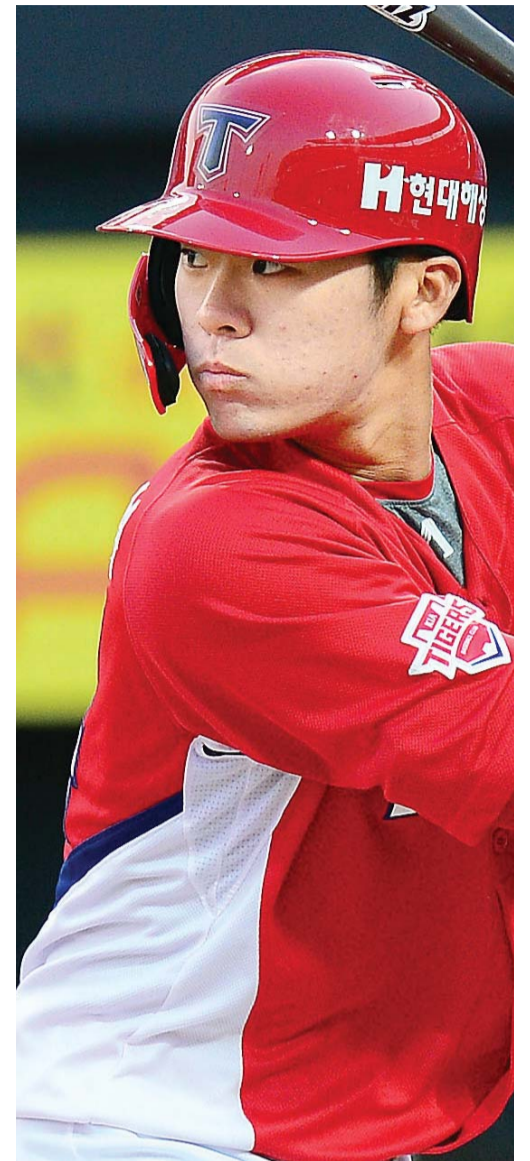
두산 이적생, 내야 전천후 수비
첫날 3루서 호수비로 화려한 신고식
둘째날 3안타·셋째날엔 도루
공·수·주 활약...KIA 팀 분위기 ↑

김규성

5년차 예비역...연습경기부터 두각
적극 수비 가담 등 유망주 급부상
김선빈 공백 메꾸며 착실한 팀플레이
고질적 내야 고민 ‘희망의 싹’

한 이적 신고를 했다.
2회말 1사에서 로하스의 빠른 타구를 슬라이딩 캐치로 잡아낸 뒤 1루로 정확히 송구하면서 안타를 땅볼로 둔갑시켰다.
덕아웃에 있던 새 동료들은 물론 마운드에 있던 브룩스까지 박수를 보내게 만든 멋진 수비였다.
류지혁은 KIA에서 두 번째 경기였던 11일 KT전

에서는 3안타를 쏟아냈고, 12일 SK전에서는 첫 도루에 성공하는 등 공수주에서 역할을 했다.
좋은 수비로 KIA 선수로 새 출발을 알린 류지혁은 13일에는 2루수로도 나와 전천후 내야수의 모습도 보였다.
5년 차 예비역 김규성도 기다렸던 기회를 잡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김규성은 지난 봄 연습경기에서 화려한 타격을 보였다. 경기가 진행되면서 적극적인 수비도 선보이는 등 내야의 유망주로 급부상했다.
김규성은 개막 엔트리에 들지 못했지만 야수진 1군 콜업 1순위로 뽑혔다. 그리고 지난 5월 16일 마침내 1군에 등록되면서 자신의 데뷔 시즌을 맞게 됐다.
김규성은 5월 29일 LG전에서 2루수 겸 8번 타자로 선발 라인업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지만, 벤치에서 때를 기다려 왔었다. 그리고 김선빈이 빠진 10일부터 선발로 경기에 나서고 있다.
10일 멀티히트를 기록한 김규성은 착실하게 팀플레이를 하면서 경험을 쌓고 있다. 13일에는 유격수로 출전해 2루에 선 류지혁과 ‘키스톤 콤비’를 구성, 좋은 수비도 선보였다.
김선빈의 공백에도 기회를 얻은 류지혁과 김규성의 착실한 플레이와 함께 KIA는 KT전에 이어 SK전에서도 승리를 높였다.
KIA가 새로운 경쟁과 함께 고민 많은 내야에도 희망의 싹을 틔웠다. /김여울 기자 wool@



김규성

한화, KS 같았던 18연패 탈출

〈한국시리즈〉

두산과 서스펜디드 게임 7-6
노태형 끝내기 타...22일만의 승리
프로야구사 최다 연패 수모 피해

한화 이글스가 KBO리그 연패 기록 경신 위기에 서 간신히 탈출했다.
한화는 14일 대전 한화생명이글스파크에서 열린 두산 베어스와 서스펜디드 게임에서 7-6으로 승리했다. 이 승리로 지난달 23일 NC전부터 시작된 패배의 사슬을 18연패에서 끊어냈다.
최다 연패 기록 경신은 막았지만 한화는 삼미 슈퍼스타즈와 불명예스러운 기록을 공유하게 됐다.
앞서 KBO리그 최다 연패팀은 삼미(1985년·18연패)였다. 한화가 지난 12일 두산전 2-5패로 최다연패 타이 기록을 작성했다. 또 지난 7일 14연패가 기록된 뒤 한우덕 감독이 자리에서 물러나기도 했다.
전날 경기가 비로 서스펜디드 선언이 되면서 3-4로 뒤진 3회말에서 경기가 재개됐다.
한화가 4회말 양성우의 내야안타와 폭투로 만든 2사 2루에서 최재훈의 적시타로 승부를 4-4 원점으로 돌렸지만, 5회초 두산 김재환에게 솔로포를 맞으며 다시 리드를 내줬다.

그러나 연패 탈출을 향한 한화의 의지가 강했다. 7회 박한결의 스트레이트 볼넷에 이어 이용규가 몸에 맞는 볼로 걸어 나가면서 1사 1·2루, 정은원이 8구 승부 끝에 이현승을 상대로 ‘씩씩이’ 2루타를 터트렸다. 김태균의 좌전안타와 노태형의 볼넷으로 2사 만루까지 갔지만 추가 득점에는 실패, 5-4의 살얼음판 승부가 전개됐다.
한화 마무리 정우람이 연패를 끊기 위해 8회 조기가동됐다.
정우람은 첫 타자 극해성을 삼진으로 처리했지만 박건우에게 중전안타를 맞았다. 땅볼로 투아웃을 채운 뒤 최주환을 고의사구로 내보내며 승부수를 던졌다. 하지만 정우람이 최주환 대신해 선택한 이유찬에게 중전 적시타를 맞으면서 다시 6-6 동점이 됐다.
마지막 9회말 공격에서 선두타자 이용규가 볼넷으로 분위기를 살렸다. 정은원의 땅볼로 1사 2루, 김태균의 고의사구로 1루도 채워졌다.
하지만 외국인 선수 호잉의 타구가 내야를 넘기지 못했다. 이어 노태형이 타석에 들어섰다.
두산 투수 함덕주의 폭투로 2사 2·3루. 노태형이 유격수 옆 빠지는 좌전 안타로 3루에 있던 이용규를 홈으로 불러들이면서 길었던 연패에 마침표를 찍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광주 진흥고·정읍 인상고 16강

황금사자기 대회...광주일고·나주 광남고 탈락

광주 진흥고가 황금사자기 16강에 진출했다.
진흥고는 14일 목동야구장에서 열린 의정부 상우고와 제74회 황금사자기 전국고교야구대회 겸 주말리그 왕중왕전 32강전에서 10-3, 7회 콜드승을 거뒀다.
1회말 볼넷으로 걸려 나간 선두타자 김길모가 도루와 폭투로 3루까지 간 뒤 김경석의 적시타 때 선취점을 만들었다.
진흥고는 3회 상대의 연속 5안타로 1-3역전을 허용했지만 3·4회 1점씩 보태며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다. 5회에는 상대의 실책과 김주홍의 좌중간 2루타 등으로 다시 6-3리드를 잡았다. 진흥고는 6말 상대의 제구 난조로 4개의 사사구 등을 묶어 10점을 채우며 콜드승을 기록했다.
나주 광남고와의 맞대결은 무산됐다.
지난 11일 서울 세현고를 7-0으로 제압한 광남고는 13일 중앙고와의 경기에서는 3-5로 졌다. 진흥고는 광남고를 꺾은 중앙고와 17시 오후 6시 30분 8강 진출을 다룬다.
정읍 인상고의 돌풍도 이어졌다.
11일 대구 상원고와의 첫 경기에서 ‘홀린쇼’로 5-1 승리를 거둔 인상고는 13일에는 11회 연장승부

끝에 제물포고를 7-4로 이기며, 16강행에 성공했다.
인상고는 지난해에는 천안 복일고를 꺾고 16강에 진출해 이번의 주인공이 됐다. 인상고는 대전고와 16일 오후 12시 30분 대결한다.
‘마리보는 결승전’으로 꼽혔던 광주일고와 강릉고의 대결은, 강릉고의 5-0 승리로 끝났다.
광주일고 에이스 이의리가 경기 시작과 함께 볼 3개를 연달아 던지는 등 볼넷으로 불안한 출발을 했다. 이어 희생번트를 처리하면서 송구 실책을 기록한 이의리는 김선우에게 2타점 적시타를 맞았다.
5회에도 2실점을 한 이의리가 6회 노성민에게 솔로포까지 허용하면서 5.2이닝 6피안타(1피홈런) 3볼넷 5실점(3자책점)으로 패전투수가 됐다. 패전투수는 됐지만 9개의 탈삼진을 뽑아내는 등 위력도 발휘했다.
한편 지난 11일 개막한 이번 대회에는 전국 11개 권역별 추첨을 통해 선발된 41개 고교가 참가, 22일까지 우승을 다툰다. 대회는 무관중으로 진행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안개속으로 사라진 KLPGA 에스-오일



14일 제주시 엘리스안 제주CC에서 열린 '제14회 에스-오일 챔피언십' 최종 라운드에 짙은 안개로 인해 지연되는 가운데, 선수들이 퍼팅그린에서 연습하며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짙은 안개에 1라운드로 종료...공식기록으로 인정 안돼

1위 최혜진...상금 75%만 배분

제주에서 열린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S-OIL 챔피언십이 날씨 영향으로 54홀에서 36홀 대회로 축소된 데 이어 경기가 이어지지 못한 채 막을 내렸다.
대회 조직위원회는 전날 일몰로 마치지 못한 2라운드 잔여 경기를 14일 7시부터 치르고 3라운드를 이어갈 계획이었지만, 짙은 안개로 잔여 경기 시작이 거듭 연기되면서 오전에 3라운드를 취소한 데 이어 오후 3시까지 그대로 대회 종료로 선언했다.
애초 이번 대회는 12~14일 제주시 애월읍의 엘리스안 제주에서 3라운드(54홀) 대회로 열릴 예정이었다.
12일 1라운드는 정상 개최됐으나 13일엔 안개와 많은 바람, 낙뢰 등으로 5시간 지연된 12시에 출발해 일몰까지 출전 선수 120명 중 절반가량만 2라운드를 마쳤다.
이날도 이른 오전부터 안개가 덮인 데다 강한 비도 이어지면서 결국 예정된 시간에 경기를 시작하지 못했고, 축소가 불가피했다.

오전 9시 조직위 회의에서 축소를 결정한 이후에도 코스에는 강한 비가 내리고, 비가 그치면 짙은 안개가 깔리는 등 정상적으로 경기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최초 예정 시각인 오전 7시에서 조금씩 밀리더니 결국 오후까지 시작하지 못해 2라운드 잔여 경기마저 개최가 불발됐다.
이에 따라 대회 성적은 모든 선수가 동등하게 마친 1라운드(18홀)를 기준으로 결정됐다.
1라운드 8언더파 64타를 몰아쳐 단독 선두로 나선 최혜진(21)이 1위에 올랐다.
36홀 이상 진행돼야 공식 대회로 인정되는 규정에 따라 이번 대회는 공식 대회로 인정되지 않으며, 각종 기록도 반영되지 않는다. 최혜진도 이번 대회의 ‘우승자’는 아니다.
상금은 기존 총상금 7억원의 75%인 5억2500만 원을 성적에 따라 배분한다.
최혜진은 상금 비율에 따라 그중 18%인 9450만 원을 받는다.
한편 KLPGA 투어는 18~21일 인천 베어즈베스트 청라에서 열리는 기아자동차 제34회 한국여자오픈 골프선수권대회로 이어진다. /연합뉴스

앱으로 실시간 야구 정보

KBO 공식 앱을 통해 응원팀의 실시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KBO가 공식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경기 상황 등 정보 알림 서비스를 제공한다.
알림서비스를 받으려면 KBO 앱 회원가입 후 마이 페이지에서 응원팀을 선택하면 된다. 앱은 구글 플레이스토어(안드로이드) 또는 애플 앱스토어(iOS) 검색 창에 'KBO'를 입력하면 다운로드할 수 있다. 서비스를 신청하면 경기 당일 오전에 대한 및 선발투수는 물론 구장 일기예보 등 경기 정보를 알려준다. /김여울 기자 wool@